

중·고교생부터 외국인까지... LG, 'AI 인재 확보' 속도

'LG 테크 콘퍼런스 2026' 개최 영재·과학·유학생 100명 초청

LG가 미래 기술 인재 확보 전선을 중·고교생부터 외국인 연구인력까지 전방위로 넓혔다. 단순한 채용 홍보를 넘어, 이공계 인재와의 조기 접점을 늘리는 '인재 파이프라인' 구축 전략이 뚜렷해지고 있다.

LG는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이공계 인재 초청 행사 'LG 테크 콘퍼런스 2026'을 개최했다. 2012년 시작된 이 행사는 LG의 R&D 비전과 기술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우수 인재와 교류하는 자리로 자리매김해 왔다.

올해는 예년과 달리 초청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기존 국내 석·박사 R&D 인재 중심에서 벗어나 영재·과학 학



14일 서울 마곡 LG사이언스파크에서 열린 LG 테크 콘퍼런스 2026 행사장 모습. /LG

생과 외국인 유학생을 처음으로 행사에 포함시켰다. 수도권 8개 영재·과학고에서 학생 100명을 초청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약 4배 늘어난 규모다. 기업이 고등학생 단계에서 '미래 인재 후보

군'과 접촉면을 넓히는 것은 삼성·SK 등 대기업들 사이에서도 최근 강화되는 흐름으로, LG도 이 경쟁에 본격 합류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해외 인재 유치에도 첫발을 뗐다. LG는 올해 처음으로 중국, 러시아, 베트남 등 9개국 출신 외국인 유학생들을 초청했다. 참가자는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으로, 각 계열사가 성장 가능성을 고려해 직접 선발했다. AI·반도체·소재 등 첨단 기술 분야에서 국내 이공계 인력만으로는 수요를 충족하기 어렵다는 산업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행보로 풀이된다.

행사에는 권봉석 LG 최고운영책임자(COO·부회장)와 정수현 LG사이언스파크 대표(LG기술협회의장)를 비롯해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 AI연구원 등 주요 계

열사 최고경영진과 기술 리더 71명이 참석했다.

LG사이언스파크 6개 건물, 9개 강연장에서는 기술 리더 31명이 연구 성과를 직접 발표하는 '테크 세션'이 동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AI·로봇, 모빌리티, 전지, 소재, 통신 등 관심 분야별 강연을 선택해 들었다.

올해 신설된 'One LG' 세션은 이번 행사의 핵심으로 꼽힌다. 계열사 간 기술 협업 사례를 공개하는 이 자리에서는 ▲버티컬팜(LG전자·LG CNS·팜한농) ▲AI 기반 화장품 효능 소재 연구(LG생활건강·LG AI연구원) ▲AI 데이터센터(AIDC) 전략 및 솔루션(LG전자·LG에너지솔루션·LG 유플러스·LG CNS) 등이 소개됐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삼성에피스홀딩스 글로벌 ESG 평가 'AA' 획득

바이오 지주회사 삼성에피스홀딩스가 글로벌 투자정보제공기관인 모건스탠리 캐피털 인터내셔널(이하 'MSCI')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리더 그룹으로 분류되는 'AA' 등급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삼성에피스홀딩스는 지난해 11월 분할 상장 이후 공개한 각종 경영 성과와 자회사 삼성바이오에피스의 ESG 활동을 바탕으로 글로벌 ESG 평가에 처음으로 참여해, MSCI로부터 높은 수준의 등급을 받게 됐다.

/이세경 기자 seilee@



NH농협은행-금융보안원, 보안 강화 MOU

NH농협은행은 금융보안원과 은행권 처음으로 디지털자산 서비스 기술 검증 및 보안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4일 서울 종로구 소재 NH협업타워에서 김주식 NH농협은행 시데이터부문 부행장(왼쪽)과 오중호 금융보안원 상무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NH농협은행



GC녹십자, 머크와 글로벌 공급망 강화

GC녹십자는 글로벌 과학기술 기업 머크 라이프사이언스와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우수의약품 생산 및 품질관리 기준(GMP) 수준의 공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13일 신웅 GC녹십자 운영 총괄 부문장(왼쪽)과 김명인 머크 라이프사이언스 프로세스 솔루션 비즈니스 대표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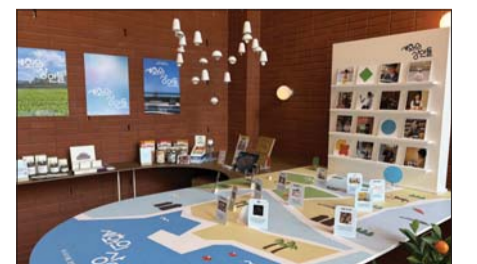
/GC녹십자



신한은행, 조산업 공급망 금융지원 협약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정책 홍보 제고를 위해 '2026년 대국민 SNS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지난 13일 대전 로컬 창업타운에서 진행한 '대국민 SNS 기자단' 발대식에서 인태연 이사장(앞줄 왼쪽 4번째)이 기자단 참여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소진공



오투기, 제주 소상공인과 상생 나서

오투기가 운영하는 복합 식문화 공간 '롤리폴리 꼬꼬'가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상생 행보에 나섰다. 롤리폴리 꼬꼬 세화리 협업 전시 현장.

/오투기

두산에너지빌리티, 파트너스데이 개최

협력사 제도·지원 방안 공유 인공지능 전환 적용 사례 나눔

두산에너지빌리티가 협력사와 품질 혁신, 디지털 전환, 공급망 대응 역량 강화 방안을 공유하며 상생협력 확대에 나섰다. 글로벌 공급망 규제와 제조업 디지털 전환이 빨라지는 가운데 협력사 경쟁력을 높여 공급망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경남 창원 본사에서 '2026년 두산에너지빌리티 파트너스데이'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파트너스데이는 협력사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열리는 행사다. 올해 행사는 협력사의 현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제도와 지원 방안을 공유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두산에너지빌리티는 경영 현황과 품질문화 활동인 'QualityLIFE'를 소개하고 인공지



14일 두산에너지빌리티 창원 본사에서 진행된 '2026 파트너스 데이'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두산에너지빌리티

능전환(AX) 적용 사례를 공유했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탄소관리 체계, 중소기업 AI 도입 사례와 지원사업 등 협력사들이 경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함께 안내했다.

협력사 경쟁력 강화 사례 공유에 이어 우수 협력사에 대한 시상도 진행됐다. 행사에서는 동반성장위원장 표창, ESG 우수협력사상, 2026년 베스트 파트너상 등이 수여됐다.

/원관희 기자 wkh@

삼표그룹, 임원 포럼 열고 AI 전략 공유

AI 중심 조직 혁신 추진

삼표그룹이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고 제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사의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삼표그룹은 최근 서울 광화문 센터 포인트에서 그룹 및 계열사 임원진 70여명을 대상으로 '2026 임원 리더십 포럼'을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외부 환경 변화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임원진부터 끊임없이 연구하고 학습하는 조직 문화를 구축하겠다는 삼표그룹의 강력한 혁신 의지가 담겼다.

올해 첫 포럼의 강연은 'AI는 삼표에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 제조업의 리더가 지금 해야 하는 것'을 주제로 IT커뮤니케이션연구소 김덕진 소장이 맡았다. 김소장은 인공지능(AI) 기술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국내외 유사 산업군의 AI 적용 사례를 심도 있게 분석했다.

특히 단순한 기술적 이해를 넘어 삼표그룹 각 계열사의 비즈니스 특성에 맞춘 실질적인 AI 적용 전략과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삼표그룹은 전 산업군에서 AI 도입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선제적인 학습과 발 빠른 대응만이 제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주도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번 리더십 포럼은 기업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인 임원들에게 AI 최신 기술 동향과 관련된 식견을 갖추고 비즈니스 방향성을 고민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4년부터 진행해온 '삼표그룹 임원 리더십 포럼'은 해를 거듭하며 성장하고 있다. 단순한 일회성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국내외 정세 및 삼표의 비즈니스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해 매년 가장 시의적절한 테마를 선정한다. 포럼은 연 4회 정례화해 운영 중이다.

/김승호 기자 bada@

인사

◆서울대학교병원 △병원관리지원실장· 기획조정실장 박도중 △교육인재개발실장 이동연 △의료혁신실장 이순태 △대의협력실장 이승미 △정보화실장 이호영 △국제사업실장 권우일 △의학역사문화원장 박상민 △진료지원실장 송재진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장 정근화 △헬스케어A

I연구원장 이형철 △연구기획관리실장 이승표 △강남센터 부원장 최수연 △강남센터 헬스케어연구소장 박지원

◆보건복지부 ◇과장급 전보 △복지정책과장 김연숙 △보훈약제과장 강준혁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신규 임명 △상임감사 정혜선

신한은행, 조산업 공급망 금융지원 협약

대·중소·중견기업 동반성장 도와

신한은행은 삼성중공업, 한국무역보험공사와 '조선업 수출경쟁력 강화 및 생산적금융 확대를 위한 상생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에 안정적인 유동성을 공급해 조선업 수출 공급망을 강화하고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간 동반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신한은행과 삼성중공업은 각각 178억원과 35억원 등 213억원을 무보에 공동 출연한다. 무보는 이를 기반으로 삼성중공업 협력업체에 총 30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공급한다.

지원 대상은 삼성중공업이 추천하는 협력업체로, 선정된 기업은 특별보증을 통한 유동성 지원과 보증료 전액 지원을 함께 받아 자금 조달과 금융비용 부



(오른쪽부터)정상혁 신한은행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 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신한은행

담을 줄일 수 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맞춰 조선업 수출 공급망을 구성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실질적인 금융 부담을 덜어주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조선업을 비롯한 국가 핵심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을 위해 맞춤형 금융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나누리 기자 yul1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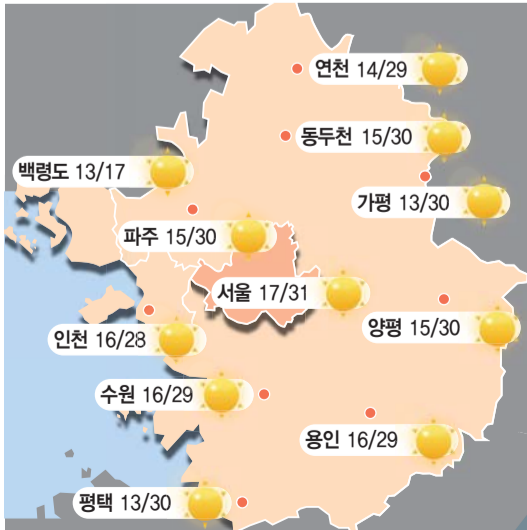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3 | 해질 / 19:34

5월 15일 (금)
음력 : 3월 29일

수도권 날씨
17~31°C

운동 지수
빨래 지수
세차 지수
외출 지수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